

-흡연에 대해서-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흡연식품중의 하나인 담배를 다른사람이 피우느냐를 결정하는 권리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가 어려운 것이다. 비록 담배가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이것을 장소와 관계없이 피운다면 다른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 기호식품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면, 이미 그것은 기호식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담배가 기호식품으로서(적절히)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흡연을 할것인가 말것인가, 어떤사람이 피우는가, 남자가 피우는가, 여자가 피우는가 보다, 어디서 피우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담배의 연기는,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TV프로그램에서 담배를 직접 피우는 사람보다도, 간접적으로 담배의 연기를 마시는 사람쪽이 담배연기의 나쁜 영향을 훨씬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요즘은 흡연의 연령층이 다양화되고 있다.

남성은 물론이거니와 여성, 대학생, 중고생등 여러계층의 사람이 장소에 상관없이 흡연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많은 비흡연자들도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있다고 생각할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쪽이 좋다는 말은 이미 설득력이 없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남을 생각하는것은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은 장소를 가려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